

傳 尙州地方出土의

異型靑銅器

尹 武 炳

一

梨花大學校博物館의 所藏品중에 慶北 尙州地方에서 一括出土된 것으로 傳하는 重要な 靑銅遺物들이 있다. 이들은 尙州郡 洛東面 洛東里에서 出土되었다는 事實 이외에는 發見狀態, 時間, 埋藏施設의 有無 등에 대하여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이 遺物들을 보면 그중에는 銅劍, 銅鉞와 같이 우리나라의 靑銅器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들도 있으나 한편으로 國內에서의 발견이 매우 드물거나 또는 이번 처음으로 그 存在를 알게 된 異型의 靑銅器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 異型靑銅器에 대하여서는 그 文化的인 性格이라든가 系統에 대한 學術的인 檢討가 요망되지만 여기에서는 단지 이들에 대한 資料的인 紹介와 함께 관련된 몇가지 事實들을 지적하여 설명하는데 그치기로 하겠다.

二

一、銅劍

이 銅劍의 色調는 漆黑色이므로 銅質이 良好한 것으로 보이지만 劍身의 한쪽 面에 銹化된 부분이 적지 않다. 全長、三三cm、莖部길이 一·

八cm、劍身 最大幅 三、九cm、등대에 세운 稜線(鎬線)은 節帶部에서 그쳤으며 그 以下로는 延長되지 않았으나 실지에 있어서 加雙을 위한 研磨는 基部(關部)에 도달하고 있다. 이 關部의 形狀은 特徵的이어서 最下端部分이 左右로 僅少하게 突出하였는데 그 이유는 끝까지 加雙을 하지 않고 약 五mm 정도를 그대로 남겨 두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편 節帶部는 그것을 區劃하기 위하여 가늘게 隆起된 突線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模式的인 表現方法과 위에서 말한 關部의 特徵的인 形態는 古式인 I式細形銅劍 시절보다 II式銅劍에서 많이 출현하고 있다(圖 1, 2).

二、銅鉞(A)

色調가 靑綠色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銅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빛깔이다. 鉞身이 두군데서 절단되고 또 鑿口도 一部가 缺失되었다. 현재의 길이는 四三、二cm이고 關部의 폭은 四、三cm이다. 橢圓形에 가까운 鑿口의 長徑은 三、四cm이며 그 外面에 一、〇五mm 폭의 突帶가 만들어져 있으나 輪廓이 뚜렷하지 못하다. 突帶上部에 인접해서 半環形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環外徑이 二、二cm이다(圖 一·一)。

三、銅鉞(B)

銅鉞(A)보다 약간 小形으로 만들어졌으나 色澤과 形態는 비슷하다. 鉞身 및 柄部의 중간쯤 되는 곳에서 각각 절단되었고 또 左右 雙部에서 도 손상된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의 길이는 三九、八cm、關部幅은 四、一cm이다. 鑿口의 형태는 圓形에 가까우며 직경이 三、三cm인데 외부주위에 만들어진 突帶의 폭은 〇、九cm이다. 半環形의 고리가 있으며 그 下端이 鑿口의 突帶 위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다(圖 1·2)。

四、牛角形銅器

이 靑銅器는 그 形態와 크기가 마치 소뿔처럼 생겼으며 內部는 中間 정도 까지를 中空으로 만들었다. 下半部의 周圍에다가 流水文처럼 생긴 曲線의 細線文帶를 만들었으며 基部에 가까운 곳에 한 개의 小孔이 있다. 鑄造方法은 合范을 사용하였으므로 文線帶가 있는 基部의 양면에서 鑄造時에 생긴 突出部(소위 甲張)를 볼 수 있다. 길이 一四cm、基部 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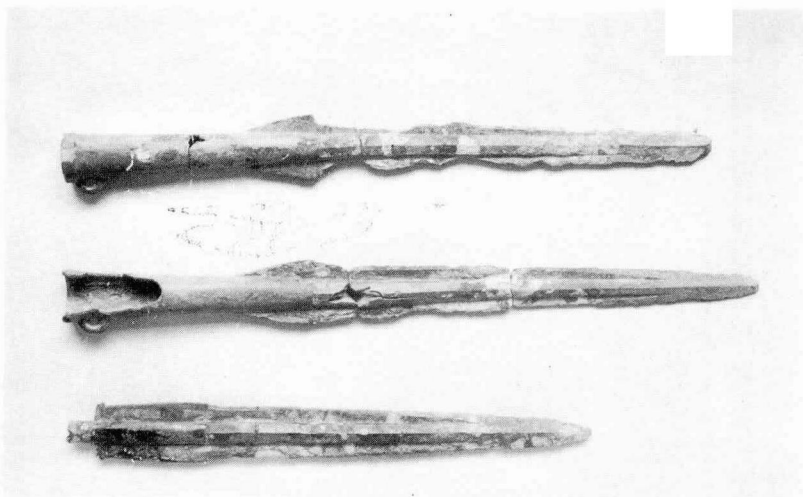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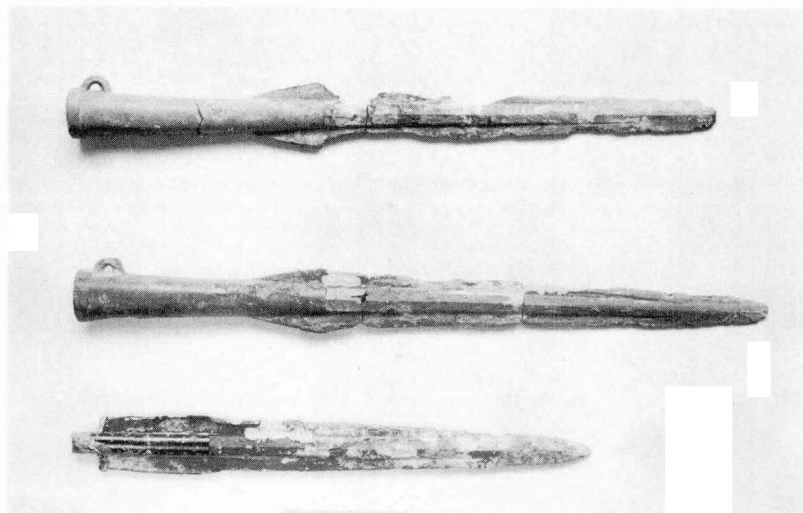


圖 1 銅劍·銅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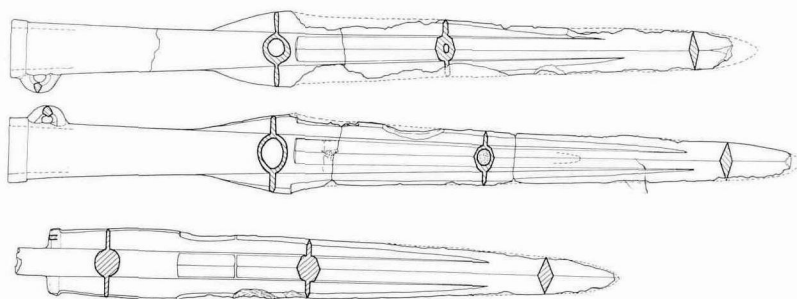


圖 2 銅劍·銅鉞實測圖

二、四 cm。이 靑銅器의 用途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 형태로 보아 가장 유사한 遺物로서는 金海期具塚에서 흔히 발견된 鹿角製의 刀子 柄部를 연상할 수 있다(圖 3·4)。

五、有鉤銅器(A)

樂浪古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蓋弓帽、즉 日傘의 살대 끝에 끼우게 되는 附屬金具를 연상케 하는 異型의 靑銅器이다。本體가 되는 棒狀部는 下半部가 中空으로 되어 있고 上端에 半圓形의 頭部를 가졌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直徑이 넓어졌다。그 下端에 가까운 곳에 爪形의 鉤部가만 들어졌으며 그 앞 뒤를 통해서 구멍이 貫通되고 있다。蓋弓帽의 형태는 鉤狀突起가 中央部에 있으며 棒狀部와 並行해서 內彎되었지만 이것은

下部位置에 直角이 되는 방향으로 붙어 있다。全長 一二、五 cm、頭部 直徑 一、五 cm、基部 直徑 一、四 cm、鉤部 길이 四、二 cm、너비 一、七 cm(圖 5·6)。

六、有鉤銅器(B)

(A)의 그것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同一形의 鉤部를 二個 만들어서 並列시킨 점이 前者와 다르다。그리고 이 二個의 鉤部를 貫通한 구멍은 각각 細長한 長方形으로 뚫려 있다。棒狀部는 折斷되고 없어졌으나 鉤部의 형태와 크기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사한 물건이었다고 짐작된다。현재 잔존한 길이는 五、六 cm、棒狀部 直徑이 一、四 cm、鉤部 길이 四、三 cm(圖 五·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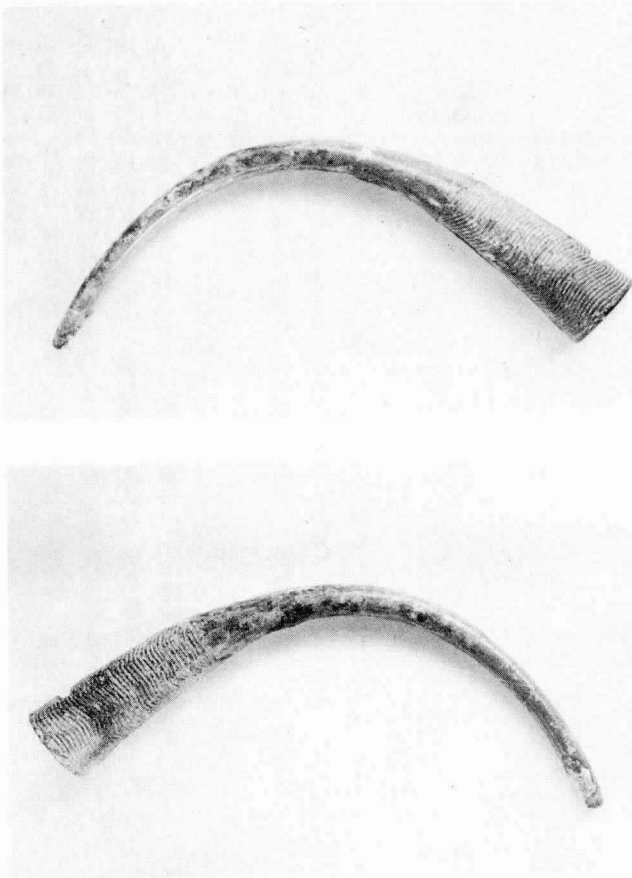


圖 3 牛角形銅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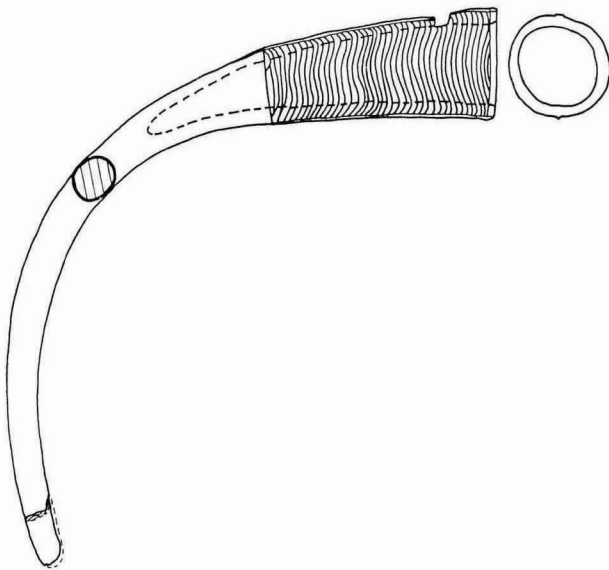


圖 4 牛角形銅器 實測圖

七、有孔十字形銅器

四角形의 네귀가突出되므로서 十字形처럼 생겼는데 中央에 圓孔을 만든 異型의 靑銅器이다. 두께가 약 4mm의 靑銅板으로 만들어진 이 물건은 몸체가 약간 휘어졌으며, 表面과 裏面에는 對角線을 중심으로 서로 對稱이 되는 斜線文(稜杉文)을 陰刻하였다. 十字部의 길이가 五、九 cm、圓孔의 직경이 1 cm이다(圖七·八)。

八、劍把頭飾(粟粒文)

平面形이 땅콩처럼 생겼는데 中央部 左右에 十字形을 이루는 突起部를 만들었다. 表面에는 좁쌀알 같은 隆起가 촘촘히 박혀 있으나 숨씨는 그다지 精巧하지 못하다. 裏面은 오목하게 空間을 이루고 있다. 길이

六、六 cm、中央突起部 너비 三、五 cm(圖七·八)。

三

이들 一括遺物중에서 銅劍과 銅鉞와 같은 武器는 자주 발견되는 유물들이기 때문에 새삼 다른 出土例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銅劍의 柄部 끝에다가 着裝하는 劍把頭飾들은 몇가지 型式으로 구분되지만 여기의 粟粒文 十字形과 동일한 형식의 유물은 과거에 平壤 對岸인 土城里에서 八例가 발견된 일이 있다①. 그 이외에도 同一品으로서 各地의 博物館등에 소장된 것을 합하면 이들의 發見數는 결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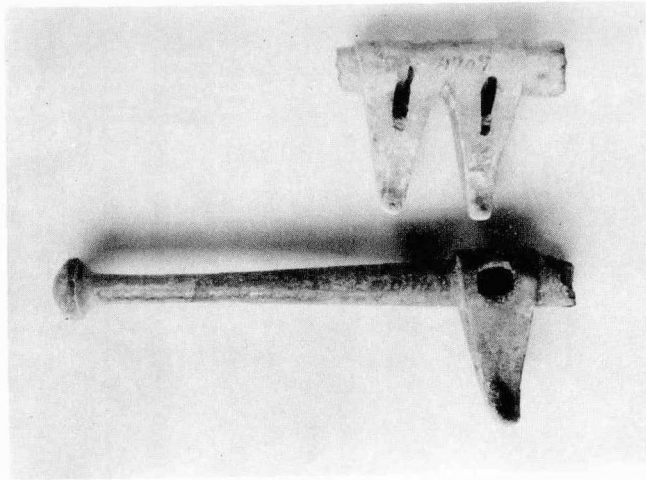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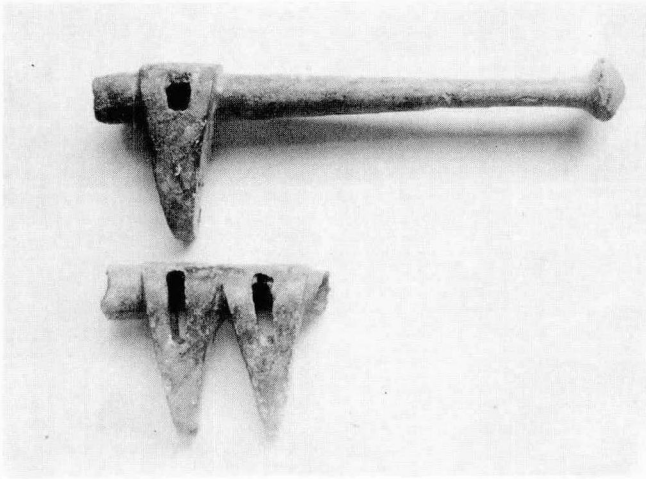


圖 5 有鉤銅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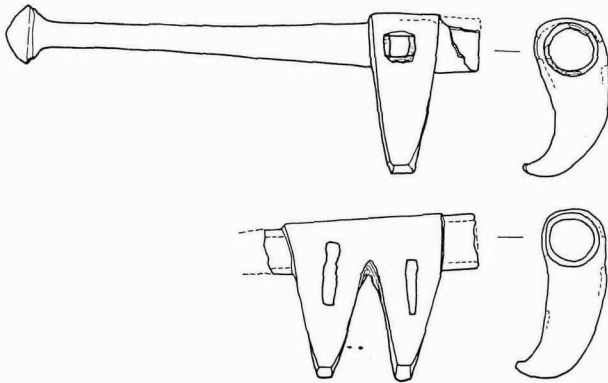


圖 6 有鉤銅器 實測圖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다시 바다를 건너 日本의 對馬島에서 현재까지 七例가 발견되고 있다②).

傳尙州出土의 一括靑銅器 중에서 武器類를 제외한 나머지 牛角形銅器有鉤銅器 有孔十字形銅器들은 그에 대한 用途를 알 수 없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느낌을 주는 靑銅器들이다.

牛角形銅器는 지난 一九七三年에 國立中央博物館에서 韓國 先史時代靑銅器展을 개최하였을 때 出品된 金東鉉氏의 所藏品이 國內에서는 유일한 例가 되어 왔다③. 이것은 尙州出土品과 形態는 동일하지만 크기는 약간 작으며 全長이 八、六cm이다. 그러나 文樣의 表現方法 등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때의 展示品圖錄을 보면 역시 金東鉉氏가 소장한 牛角形의 靑銅器 二個를 아올라 수록하고 있으나 이들은 길이가 二、八cm과 二、五cm에 불과하다고 기록되고 있다④. 筆者는 아직 實物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만약 이들 모두가 동일한 성격의 유물들일 경우에는 國內에서의 발견수는 三例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 된다. 한편 이처럼 생긴 牛角形銅器는 一九二〇年代에 日本 對馬島의 佐護 白岳遺蹟에서 발견되어 東京大學 人類學教室의 所藏으로 돌아간 것이 있어서 일찍부터 알려져 왔으나⑤ 그 후 對馬島의 峰町 サカドウ遺蹟⑥、豐玉町 唐崎遺蹟⑦ 峰町 木板遺蹟⑧에서 새로운 발견이 報告되므로써 四例를 들 수 있게 되었다.

有鉤銅器와 有孔十字形銅器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未發見의 靑銅器들이었으며 筆者 自身도 아직까지 그러한 유물을 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역시 對馬島에서의 發見例가 알려져 있으며 그중 前者의 類似品로서는 豐玉町 唐崎、峰町 サカドウ、峰町 木板、遺蹟 및 峰町 トウトゴ山 一號石棺⑨에서 각각 一個씩 모두 四例가 발견된 바 있다. 峰町 サカドウ遺蹟의 出土는 下部를 缺失한 破損品이고 나머지 三例는 尙州出土와 대략 同型同大이지만 그중에서 唐崎 및 木板의 그것은 鉤部가 反對方向으로 附着되고 있다.

有孔十字形銅器도 역시 唐崎、サカドウ、木板의 三遺蹟에서 각각 一

個씩 出土되고 있으며 形態는 물론 크기와 文線構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手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同範品은 존재하지 않는다.

四

韓國과 日本과의 靑銅器文化의 交流相은 종래 생각해 온 바와 같이 單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日本에 있어서의 靑銅器의 製作이 韓國의 技術을 導入하여 시작된 것은 틀림 없는 事實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韓國의 靑銅器들이 一方通行格으로 日本에 流入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와는 反對로 日本産靑銅器가 우리나라의 遺蹟에서 出土되는 事實에 驚愕하게 되었다. 大邱 晩村洞 出土의 日本製 中廣形銅戈가 그 첫번째 케이스에 해당된다⑩. 그 후 金東鉉氏 소장품 중에 晩村洞出土와 거의 同形의 銅戈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日本産의 中細形銅鉞 一個가 있는 것이 注目되어 이들은 韓國 先史時代靑銅器展에 함께 出品되었다⑪. 以上 五個의 中廣形銅戈와 一個의 中細形銅鉞가 日本製品임에 대하여서는 疑心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근래에 增加一路에 있는 우리나라 靑銅器 資料들 중에는 韓國製品인지 혹은 日本産인지 그 國籍을 밝히기 어려운 유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一九七〇년에 金海地方에서 최초로 발견된 五個의 變形細形銅劍이⑫ 그 범주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나 對馬島에서는 이미 四個所에서 발견된 바 있으며 數의 差로 훨씬 우수하다. 이 金海유적에서는 다른 銅鉞 二個가 함께 出土되었는데 이들의 形態上으로 보면 日本式銅鉞와 共通되는 要素를 갖추고 있으며 日本의 色彩가 濃厚한 遺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後者의 銅鉞와 同一種類의 것이 그 후 金海地方에서 다시 二個가 추가해서 발견된 바 있으나⑬ 日本에서는 아직까지 出土된 사실이 없다고 한다. 筆者는 앞서 金海出土의 變形銅劍과 銅鉞에 대하여 소개한 논문에서 이들이 日本製靑銅器임을 주장하고 그 產地를 對馬島로 추측한 일이 있다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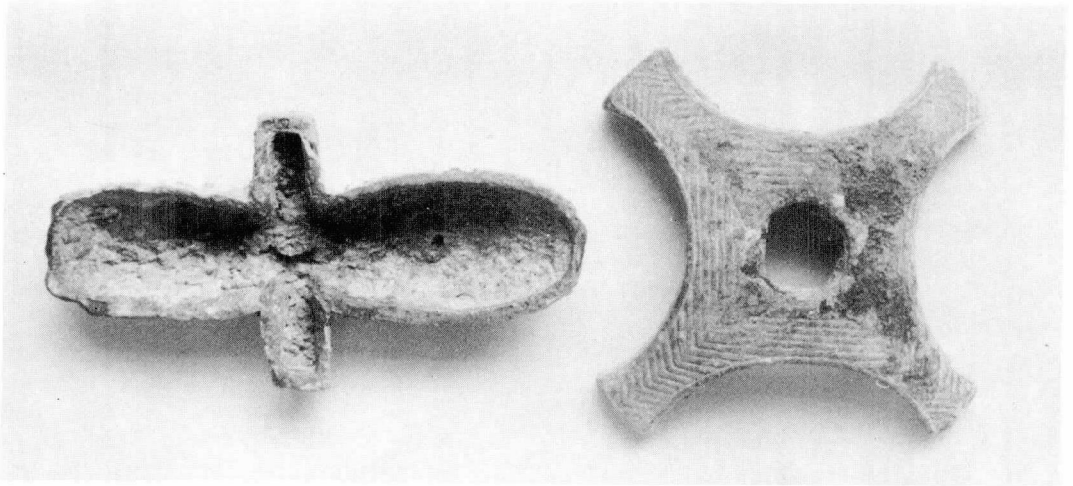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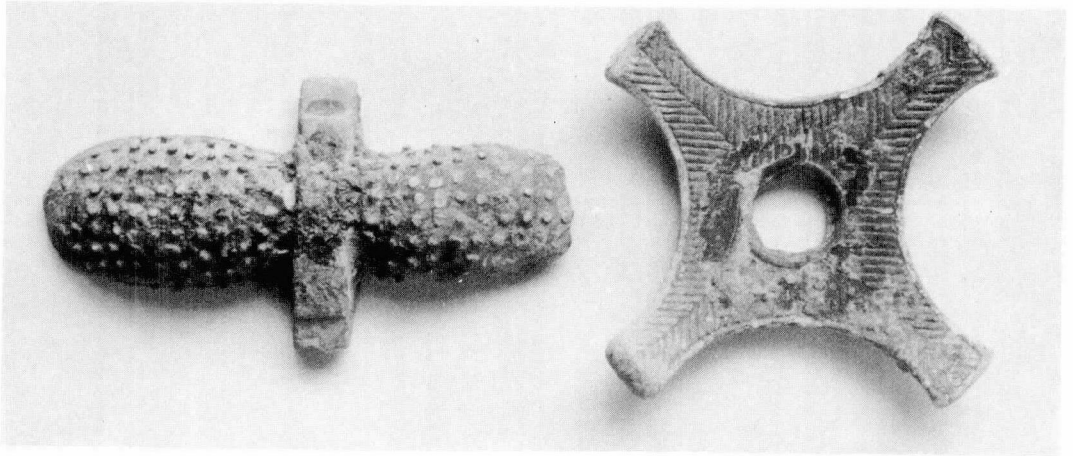


圖 7 劍把頭飾·有孔十字形銅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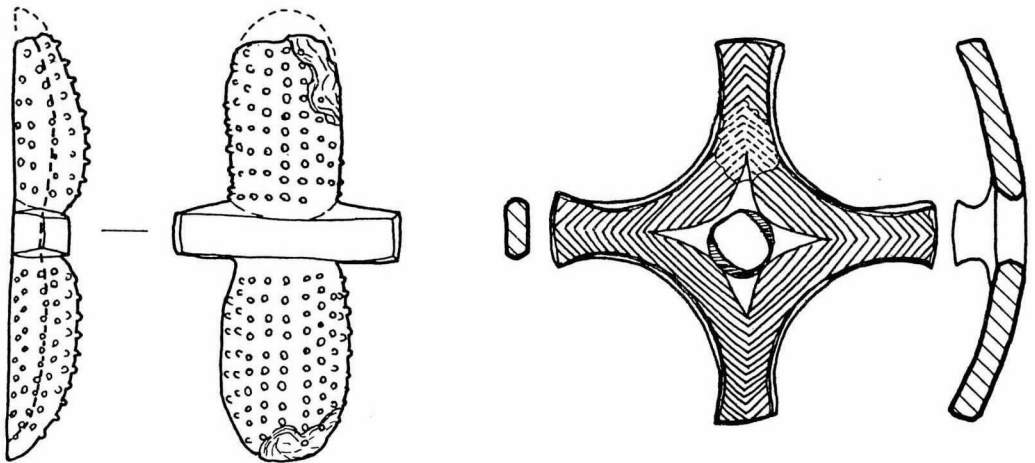


圖 8 劍把頭飾·有孔十字形銅器實測圖

對馬島가 韓國과 日本과의 靑銅器文化圈 사이에서 中繼地로서의 特殊地位를 유지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특히 이 섬에서 발견된 日本産靑銅器의 수는 一二〇개의 다수에 달하고 있다¹⁵⁾. 이에 대하여 韓國製靑銅器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細形銅劍이 七例, 銅鉞 一例, 劍柄 一例 其他등이 기왕에 出土되고 있다. 그런데 對馬島出土靑銅器 중에는 日本本土에서나 韓國에서 발견되지 않은 一類의 異型靑銅器가 있었으니 위에서 말한바 變形細形銅劍과 牛角形銅器, 有鉤銅器, 有孔十字形銅器등이 그 종류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후 變形細形銅劍이 金海地方에서 발견되었고, 出土地 未詳의 牛角形銅器가 個人所藏品에서 나왔으며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有鉤銅器와 有孔十字形銅器, 그리고 牛角形銅器가 一括해서 尙州에서 出土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對馬島를 中心으로 한 異型靑銅器의 分布는 그 一部가 韓國의 東南部に 擴大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資料增加의 추세로 말미암아 그들 異型靑銅器의 製作地問題에 대해서는 再檢討가 不可避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筆者 자신도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收錄된 實測圖面과 寫眞은 日本 北九州市立歴史博物館의 小田富士雄先生이 베풀어준 好意에 의하여 掲載된 것임을 記하여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註〉

- ① 一九二二年度 古蹟調査報告 P、一〇〇
- ② 「靑銅의 武器」 P、二五、九州歴史資料館、福岡、一九八〇
- ③ 「韓國先史時代靑銅器」 PL 六八、國立中央博物館、서울、一九七三
- ④ 註(二) 同上書 P L、六九
- ⑤ 註(一) 同上書

- ⑥ 長崎縣文化財調査報告書 第十七集「對馬」 P P、三六一~三六二、長崎縣教育委員會、一九七四
 - ⑦ 長崎縣文化財調査報告書 第八集「對馬」 P P、一六~二〇、長崎縣教育委員會、一九六九
 - ⑧ 峰町文化財調査報告「木坂石棺群」 P P、三四~三九、長崎縣峰町教育委員會、一九七六
 - ⑨ 註(八) 同上書 P、三四
 - ⑩ 金載元, 尹武炳(大邱晚村洞 出土의 銅戈·銅劍) 「震檀學報」二九·三〇號、서울、一九六六
 - ⑪ 註(三) 同上書 P L、六三
 - ⑫ 尹武炳(金海出土의 異型銅劍·銅鉞) 「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서울、一九七一
 - ⑬ 註(三) 同上書 P L、五四
 - ⑭ 註(二) 同上書
 - ⑮ 註(二) 同上書、付·日本靑銅武器出土地名表 參照
- (忠南大學校 教授)